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88

일반적으로 신규 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많은 초기 고정비용과 함께 최저 자본금 요건 등을 비롯한 엄격한 금융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금융부문의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모바일 관련 기술, 데이터의 저장·처리 관련 기술 등 최근의 IT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디지털 혁신¹⁾을 유도하면서 금융업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다. 온라인·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굳이 점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금융업체와 수요자 간 다양한 접점을 형성시켰다. 데이터 저장 비용의 감소와 처리 속도의 향상에 따라 금융업체는 금융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설치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SaaS: System-as-a-Service)하는²⁾ 등 금융시장 진입 고정비용이 크게 감소하였다.³⁾

이와 함께 정부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19년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9년 시행) 등을 통해 자격 심사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왔다.⁴⁾

연도별 주요 핀테크 규제 완화 정책 동향

| 연도 | 주요 내용 | |
|------|--|---|
| 2015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 |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인가 |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
| 2017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P2P대출 서비스 시행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투자 자문·일임 허용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9년 시행) 금산분리 완화 및 규제 적용 유예(19년 시행) |
| 2019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오픈뱅킹 시행 |
| 2020 | 신용정보법 개정 |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
| 202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기간 연장 가능 |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이로 인해 IT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졌다.

1)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등과 관련된 금융 혁신 부분은 본고의 논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 Gartner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의 SaaS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000억달러에서 2021년 약 1,50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3) 시중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차 점포 시설물 및 보증금 등 업무용 고정자산(21년 9월말)은 평균 2.4조원에 달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의 동 자산은 평균 27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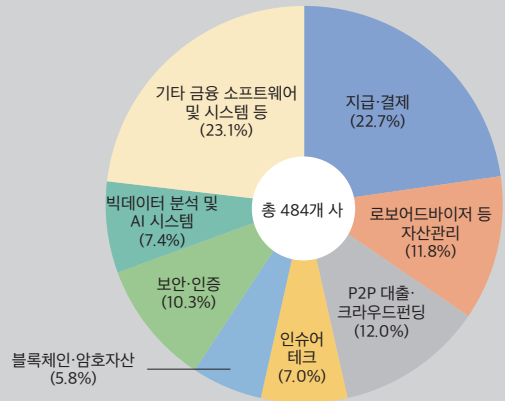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규제 특례를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는 설립 최저 자본금을 은행법의 1/4 수준인 250억원으로 설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금융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바젤Ⅲ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여 주었다.

(핀테크 기업)

인지도가 낮고 자본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해 전통적 금융중개가 아닌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 일부를 개선·보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unbundling) 성장해 왔다. 핀테크 업체수는 2017년말 288개에서 2020년말 484개로 약 1.7배나 늘어났으며, 그 중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 수는 11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및 머신 러닝(ML: 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robot-advisor), 대형 건물·주식, 저작권 등을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투자(micro-investment) 서비스 등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59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중개와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기업이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없이 대출·투자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B2B: Business-to-Business)으로 빅데이터, AI, 디지털 보안·인증 등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국내 핀테크 기업 비중¹⁾



주: 1) 2020년말 기준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0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빅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은 금융시장 진출 이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 등에서 플랫폼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 차별화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빅테크는 최대한 많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고객들이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⁵⁾를 증대시켜 왔다.

한편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고객의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왔다.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은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판매를 원할 때 일차적으로 방문하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5)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용자 간 정보의 교환이 빈번해지고 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져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이용자 간의 양(+)의 외부효과를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e-commerce), 차량공유 서비스(car hailing) 등의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 혹은 서비스 이용 후 작성하는 상품평,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콘텐츠 등은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주 통로가 된다.

네이버·카카오의 부문별 금융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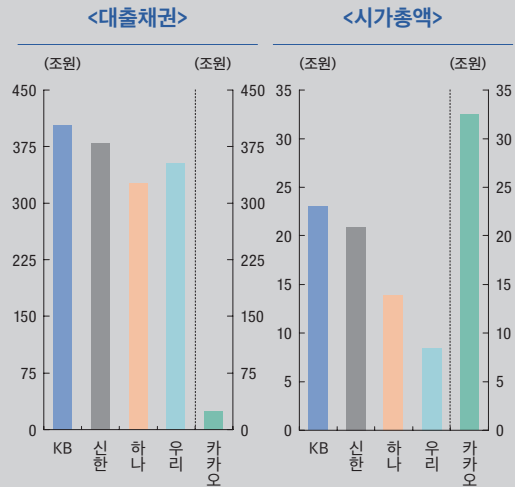
| | 지급결제 | 예금수취 | 대출 | 증권 | 보험 |
|-----|------|------|----|----|-----------------|
| 네이버 | O | X | O | X | X |
| 카카오 | O | O | O | O | Δ ¹⁾ |

주: 1) 2021년 6월 디지털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2월에 본인가 신청

자료: 한국보험연구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2021
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 2021

빅테크 기업은 금융시장에서도 플랫폼 중심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의 고객 기반 위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이용자 간 상호연계를 강화한다. 플랫폼 내에서 축적된 이용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데이터는 다시 대출, 펀드,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 또는 추천하는 기반이 되어 이용자의 더 많은 서비스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⁶⁾⁷⁾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금융시장에서도 여전히 효과적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로, 카카오뱅크는 4대 금융주에 비해 대출 규모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주주사와 카카오뱅크의 대출채권 및 시가총액 규모¹⁾

주: 1) 2021년 3/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이 밖에도 빅테크 기업은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로 고객의 금융정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AI·ML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보 없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중개가 가능해지는 등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⁸⁾

금융 여건 및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금융 여건의 변화)

앞서 살펴본 금융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특히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자금중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

6) 빅테크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DNA 순환구조(Data-Network-Activities loop)라고 불린다. DNA 순환구조란 빅테크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플랫폼 내 이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분석의 원천이 되며, 한층 정교해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뜻한다(Shin,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 BIS, 2019).

7) 네이버파이낸셜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21년 7월).

8) Gambacorta, L., Y. Huang, Z. Li, H. Qiu and S. Chen, "Data vs. collateral", BIS Working Papers, No. 881, 2020

로 판단된다.

먼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matching)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장에서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 수요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점포를 찾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빅테크의 플랫폼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적합한 자금 수요자를 탐색하여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자금 공급자에게 소개(brokerage)하고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을 대체하는 금융중개도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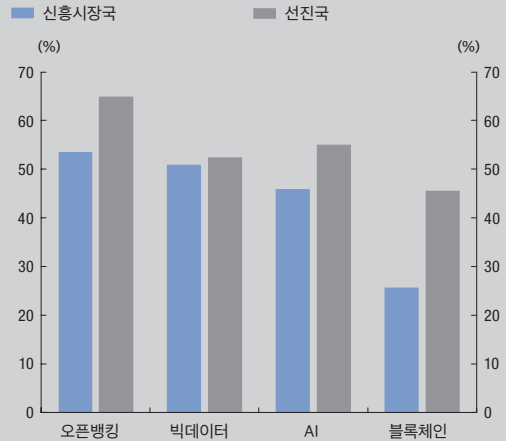
또한, 빅데이터 및 AI·ML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신용평가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 등이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자금 수요자의 재화·서비스 구매, 소셜 미디어 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⁹⁾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금융중개의 변화는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의 최우선적인 자금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여전히 안전한 금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빅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은행의 예금 수신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은행 예금에 위협이 되는 디지털 기술¹⁾



주: 1) BCBS의 39개 신흥시장국 은행 및 42개 선진국 은행 대상 서베이 결과 (복수 응답)

자료: BCBS, "Impact of digitalisation and disintermediation of finance on retail banking", BIS, 2021

다음으로 금융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은행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주로 양호한 자금 운용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 위험의 가격을 산정하며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우선 자금 수요자 탐색에 있어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에 역할을 일정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금융정보 이외의 소비지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이전의 신용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이 늘어나면서 은행은 금융정보에 더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쟁력

9) 예를 들어,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사의 상거래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형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구매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들은 스마트폰 충전 주기, 메시지 수신 대비 발신 비율(이상 크레파스솔루션), SNS 팔로워 수, 사용 기간, 콘텐츠 수(이상 렌도)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위험관리가 이전에 비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은행이 자체적으로 혹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금융의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은행으로서는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매우 복잡·다양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많은 대출을 취급(pooling)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의 위험관리가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은행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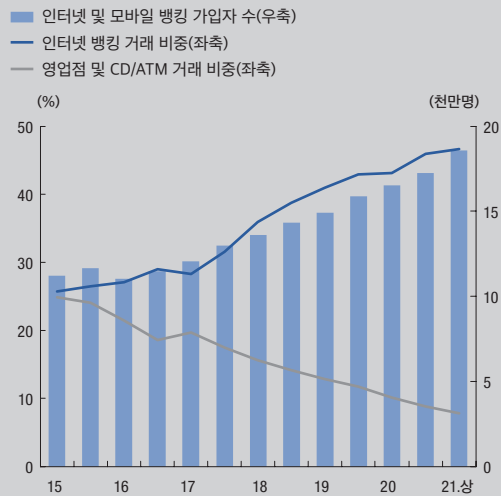
은행은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핀테크와의 협업을 실시·추진하고 있다.

은행은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신속성 및 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에 맞춰 금융소비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예금, 대출, 송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핀테크나 빅테크 플랫폼으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는 AI,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등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투자 또는 인수하거나 자체적인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를 신설하여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협업하고 있다.¹⁰⁾

한편, 은행은 빅테크에 대항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다양한 금융상품과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헬

스케어, 중고차 거래 서비스, 택배 방문 예약 서비스 등 비금융상품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금융·비금융 상품 제공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기까지는 금융규제 여건상 아직 제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다.¹¹⁾

시중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 수¹⁾ 및 금융서비스 채널별 거래 비중²⁾



주: 1) 각 은행 서비스 가입자 수 합계(중복 가능)

2) 거래 건수 비중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0) KB이노베이션 허브, 신한 퓨처스랩, 하나 원큐 애자일(1Q agile)랩, 우리 디노랩 등 금융지주회사들은 핀테크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유망한 핀테크 업체들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11) 금융지주회사의 원앱(one-app)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이외 다른 영리 목적의 부수업무의 수행이 금지되고, 은행 앱에서 증권, 보험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금융당국의 경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원앱을 통해 디지털 유니버설뱅크(digital universal b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다(21년 10월 28일).

시사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시장에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진출하면서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혁신과 관련한 규제차익의 관점에서 기존 은행과 빅테크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level playing field)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과 은행 수익성의 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사례에서처럼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질 경우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과도한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인한 사이버·운영 리스크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